소상공인 온라인 지원 '소담스퀘어 in 전주'

시, 옛 청소년자유센터 건물 리모델링해 온라인 판로 확대 돕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 개소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2일 팔복공원 인근에 위치한 옛 청소년자유센터 건물(덕진구 서귀로 107)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소담스퀘어 in 전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실시한 디지털커머스 기관 구축·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구축된 이 공간은 소상공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담소)라는 뜻의 '소담'과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스퀘어)라는 의미에서 '소담스퀘어 in 전주'라는 이름이 붙였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 교육부터 컨설팅, 마케팅 프로모션 등 라이브커머스 전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소담스퀘어 in 전주는 지상 1층~2층의 공간을 디지털 전환을 꿈꾸는 소상공인들 공간으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2일 팔복공원 인근에 위치한 옛 청소년자유센터 건물(덕진구 서귀로 107)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소담스퀘어 in 전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패션' 스튜디오 △'리빙' 스튜디오 △'쿠킹' 스튜디오 △'크로마키' 스튜디오 △콘셉트에 맞는 대형 소품들로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스튜디오 등 총 5개의 스튜디오와 방송 편집실, 소상공인 맞춤별 라이브방송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소상공인들의 소통 공간인 공유오피스 등을 갖췄다.

시는 소담스퀘어 in 전주를 통해 디지털커머스 방송에 생소한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돕고 직접 라이브커머스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단기교육은 물론이고 라이브방송 실습교육, 시장상인 특화교육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상품 온라인 지원을 위해 상품 소개 상세페이지를 제작해 다양한 쇼핑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네이버와 그립 플랫폼 등에서 라이브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소담스퀘어 in 전주는 자체 라이브방송 채널을 보유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튜디오와 장비 대여도 가능하다.

시는 향후 이 공간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라이브방송 등 온라인 판로를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소담스퀘어 in 전주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우수한 상품과 경쟁력 있는 기술 등을 실시간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 공간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뿐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시민 소득 1억원 시대 만들겠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전주경제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전주시민 소득 1억원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민 1억원 시대를 만들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속시원한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를 시정 최우선에 놓겠다는 약속에 따라 전주경제 규모를 키우고 지역 기업의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시민의 생활비를 아껴주는 생활경제형 정책 공약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전주를 1,000만 경제 플랫폼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디지털 테마파크, 대규모 힐링랜드, 지역 상생형 대형쇼핑몰 등을 통해 도시의 내부 경쟁력을 키우고, 전주·완주·익산 경제통합시, 일명 만경강 테라시티로 지방소멸 위기를 넘겠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핵심 공약인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 팔·만·여 프로젝트, 유니콘 기업 발굴 및 육성 등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전주시민의 소득 1억원 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살림살이를 챙기고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24세 이하 청소년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가계경제의 부담으로 자리 잡은 통신비 절감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대폭 확대해 데이터요금 프리 도시, 전주를 만들고, 신혼부부 1억원 무이자 대출 시행,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예비후보는 "지역 기업을 키워내는 청사진을 통해 전주시민의 소득 1억원 시대를 만들고, 시민의 살림살이까지 챙기는 속시원한 경제시장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주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정책 경쟁을 벌여왔던 이중선 후보의 사퇴를 안타까워하며 나머지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선거브로커 병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치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윤상 기자

'한지로 누리고, 한지와 노닐다'

'제26회 전주한지문화축제' 5월 5~7일 온 · 오프라인 병행 개최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전주한지의 멋과 가치를 확산시킬 전주한지문화축제가 다음 달 5일 개막한다.

전주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선태·총감독 인미애, 이하 조직위)는 이날부터 7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한지로 누리고, 한지와 노닐다'를 주제로 한 제26회 전주한지문화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조직위는 올해 축제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 방침에 맞춰 현장 중심의 대면 소통 프로그램과 지난해 만족도가 높았던 비대면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구성해 한지의 멋과 가치를 즐기는 축제로 준비 중이다.

축제는 크게 △개막식 △한지마당 △전시 △부대행사의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제28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제2회 어린이 한지미술공모전 △한지쇼룸 △한지가족소풍 △한지코스튬 시민모델 프로젝트 △초대작가전 △한지응용상품 아이디어 공모 △한지 조형물 전시 등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한지문화축제의 포문을 여는 개막식은 어린이날인 5월 5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현장 개막행사는 공예대전 및 미술공모전 시상으로 시작해 '나는야 한지의상 디자이너' 프로그램의 시민참여 패션쇼로 마무리된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개막식 특별프로그램으로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한지가족소풍에 사전 신청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지놀이 등이 현장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조직위는 한지축제와 함께 매년 개최하는 제28회 전국한지공예대전의 출품작을 오는 15일부터 3일간 접수한다. 출품부문은 △지호, 지승, 지화의 전통부문 △의상, 그림, 조형의 현대부문 △응용한지공예를 엿볼 수 있는 기타부문의 총 3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개막식에서 대상(국무총리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이 시상될 예정이며, 수상작들은 5월 한 달간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조직위는 올해 축제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열리는 만큼 △한지체험키트 △한지 패션 및 생활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부스 △경기전 수복청과 경덕헌의 창호지 교체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조직위는 축제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홍보와 함께 이벤트도 진행한다. 프로그램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한지문화축제 누리집(www.jhanj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태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역을 가장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한지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보인 만큼 이번 제26회 전주한지문화축제에서도 시민과 한지인들의 손길을 통해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한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하가지구에 전북현대 후원의 거리 조성"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유창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북 현대팀을 지원하고 상징하는 후원의 거리 조성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전북현대 후원의 거리 조성에 대해 "하가지구 일대를 이색적인 스포츠 문화의 거리로 지정,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전북현대 후원의 거리는 축구와 현대팀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애정과 상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며 "하가지구가 스포츠 문화를 담은 새로운 명소로 바뀌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북현대 후원의 거리 조성은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축구 체험을 통해서 축구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축구동호인들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찾아오는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하가발전협의회'는 전북현대 후원의 거리를 조성해 지역상권을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는 앞으로 전북현대와 전주시, 하가발전협의회 간에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의 거리에 전북현대 마스코트와 축구공으로 구조물을 세워 상징성을 나타낼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 이중언어 환경 조성 교육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지난 11일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책 놀이를 통해 한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부모코칭을 실시했다.

이번 부모코칭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어는 물론 외국어로도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됐다.

교육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책 놀이를 통해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지고 한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숙지할 수 있는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243-21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무주택 청년들에 절반 임대료 주택 공급

전주시, 청년 19명 모집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이번 달 22~26일 서노송예술촌 인근에 위치한 중노송동 14호, 전주대 인근 효자동 2호, 전북대 인근 금암동 1호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19명을 모집한다.

공급 형태는 1인 단독거주형 16호와 3인 공동거주형 1호 등 2가지다. 임대주택의 경우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구비됐다.

입주 자격은 만 19~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은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2인 532만 원, 3인 641만 원) 이하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385만 원) 이하다.

임대 조건은 주택별로 다르나 임대보증금은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6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과 소득, 자산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5월 중 1순위부터 입주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걷다 보면 보이는 그때 그 장면 in 전주' 여행상품 출시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촬영지 연계한 여행상품이 출시된다.

전주시는 '스물다섯 스물하나(tvN)', '그해 우리는(SBS)', '연모(KBS2)', '옷소매 붉은 끝동(MBC)' 등 전주가 드라마 촬영지로 큰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드라마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기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종영한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인기로 전주한옥마을, 서학예술마을, 한벽굴 등 극중 주요 공간이 되는 곳들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여주인공의 집과 집 앞길은 한옥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집과 언덕길에서, 남주인공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만화방은 서학예술마을에서 각각 촬영됐다. 남녀 주인공이 여름의 절정에 서로의 감정을 키운 공간인 한벽굴은 최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투어 온라인플랫폼(하나투어닷컴, 하나LIVE)에서 '걷다 보면 보이는 그때 그 장면 in 전주'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는 이 여행상품은 이들 드라마 촬영지들이 연계됐다.

이 상품은 전주시내 호텔 숙박권과 더불어 △한복대여 체험권 △전통시장 사용 온누리 상품권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 여행상품 출시와 별도로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신규 임용 공무원 맞춤형 교육 실시

전주시, 직무 · 소양교육 · 시정 주요현장방문 등 진행

전주시가 신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적응을 도왔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올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 85명을 대상으로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인 '함께 가는 첫걸음'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임용 공무원이 2기수로 나뉘어 기수별로 7일간 교육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직원복무 및 복지 △예산, 회계, 새올·온나라, 보고서 작성법 △공직가치, 청렴 △민원응대법, 감정치유 △분임활동 △시정 주요현장 방문 등 기본 행정직무 과정과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이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는 물론 관련 분야의 팀장이 강의에 직접 나서 이해를 높이기도 했다. 또, 선배 공무원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됐다.

시는 향후에도 공감소통 멘토링과 상시상담센터, 청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힐링캠프 등을 운영해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